

#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 기독교 통일지도자의 양성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 1. 문제의 제기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흔히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통일비용의 확충,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 주변국과의 우호적 협력관계 유지,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등의 결코 쉽지 않은 일들

이 거론된다. 통일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통일, 즉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하나 되는 통합의 차원까지 고려한다면 준비해야 할 일들은 더 다양하고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일들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르면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인

재를 키우는 일에 모아질 것이다. 현재 남북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또한 자라나는 새 일꾼들이 통일된 한국에서 일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통일 준비 없이 직업에 대한 전문성만을 갖춘 인재라면 통일의 과정 가운데 많은 불협화음을 남길 것이다. 우리는 남북의 이념적 갈등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고,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인재를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통일 한국 리더십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이 된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서 최근의 남북한 정세를 내다 보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자 만들어진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학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2. 숭실대 기독교 통일지도자 과정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 학과는 2016년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설립된 석박사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인재 양성에 힘써 온 동 대학의 행정학과, 법학과, 기독교학과 등 3개 학과 협동과정으로 일반대학원에 신설됐다. 물론 3개 학과의 협동과정이지만,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철학과 등 통일과 관련된 학과 교수들도 강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통일의 과정이 복잡적이고 다양한 만큼 학제간 프로그램이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협동과정으로 만든 것이다.

설립 당시 작성된 이 과정의 안내서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기독교 정신으로 통일국가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지도자를 양성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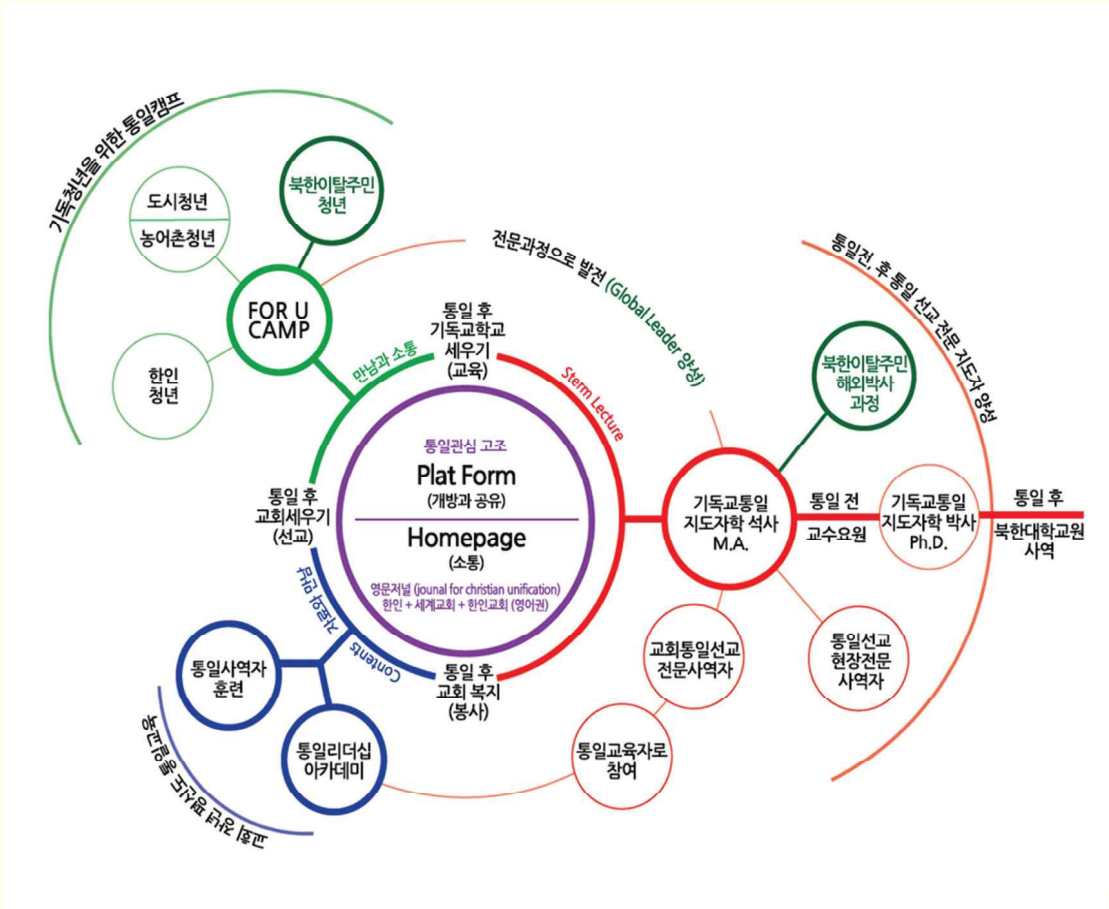
통일 이전에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며, 통일시대에는 남북한 복음화와 사회통합을 이루어 기독교 가치가 실현되는 통합국가를 세우고 인류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은 통일한국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국가를 이루는데 공헌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창의적 리더를 양성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는 앞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핵심과목으로는 통일신학, 통일선교학, 통일제도론, 통일경제론, 통일법, 통일인문학 등이 있다. 그밖에 통일리더십과 경영원리, 통일현안연구, 김정은 리더십 연구, 성서적 문화통합 등 여러 과목들도 개설되어 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개설 과목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과목들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남북한 통일 및 통합의 기본 가치와 이념에 관한 과목들로서 성서와 신학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수업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의 제도에 관한 것으로 사회과학적 지식을 통해 제공된다. 기독교 통일지도자 프로그램은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두 가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추고 제도라는 렌즈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며,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인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 시대의 인재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행동하는 힘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두 가지 렌즈에 더하여 실제로 변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 과정의 주요사역 흐름도

(entrepreneurship)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기업가적 정신을 가진 인재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과 인력 동원 등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 통일 지도자는 단순히 기업가 정신을 갖춘 인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 기업가와와는 달리 기독교 통일지도자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기업가, 즉 사회적 기업가를 의미한다. 결국 송실대학교의 '기독교통일지도자 과정' 수업은 각 분야에서 자신이 갖춘 지식을 기반으로 하되 더 나아가 기독교적

세계관과 제도적 시각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고, 아울러 자신의 생각과 기회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 과정은 2016년 3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총 65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파르게

‘기독교통일지도자’ 과정은  
 각 분야에서 자신이 갖춘 지식을 기반으로  
 기독교적 세계관과 제도적 시각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기회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통일 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주고, 통일에 대한 여건을 이해하게 하며, 아울러 통일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통일 한국은 지금 남북한에 거주하는 인재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 과정은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성장한 과정이다. 재학하는 학생들의 배경을 보면, 목회자와 일반인들이 반반 정도를 차지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다. 총 36명의 목회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29명의 일반인들 가운데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NGO에서 활동하는 사람, 방송인, 주부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는 탈북인들도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과정 중인 탈북 목회자나 일반인들 모두 공부 마친 후에는 북으로 가서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이러한 탈북 인재들을 충실히 양성하고, 향후 북한에서 지도자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앞으로는 이 과정을 글로벌 과정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해외 동포가 7백만여명이 넘었는데, 이들을 비록 몸은 외국에 있지만, 통일 한국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을 위해 헌신하려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



글 |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이며 미국 하버드 대학 도시계획학 박사이다.